

1차 7월 25~27일  
2차 8월 9~11일

# 경주서 청소년 꿈 영근다

## 불국사, 동대경주캠퍼스 제1회 템플스테이

경주하면 떠오르는 사찰,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의 대표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경주 불국사가 최초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 스님)와 경주 동국대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중)에서 제1회 템플스테이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는 첫 템플스테이 진행을 겸해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연계한 청소년 심화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수학여행 등에서 관광으로만 느꼈던 신라불교문화와 민족전통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청소년 여름수련회는 크게 천년역사탐방, 템플스테이, 힐링 프로그램 체험으로 진행된다. 천년역사탐방은 불국사 석굴암, 문무대왕릉, 감은사, 분황사 등에서 전문해설사를 통해 불교문화와 민족전통을 느끼도록 구성됐다.

또 동국대 경주캠퍼스 긍정생활관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에서는 전통 등 만들기, 108배, 탁본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최성에 HD마음뇌과학 연구센터소장의 '감정코칭을 통한 관계 방식'을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돼 청소년의

### 감정코칭 특강, 심신 치유

### 천년역사탐방·명상 등 진행

심신 치유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백로 서식지에서 불국사 스님들의 지도하에 명상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수련 일정은 1차가 25~27일이며, 2차는 8월 9~11일까지다. 각각 2박 3일의 일정이며 8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불국사 첫 템플스테이에 대한 기대는 크다. 김영중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오



국제선센터 청소년 템플스테이의 한 장면. 불국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코칭과 명상 등 다양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열되지 않은 고도인 경주에서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현장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아름다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머무르는 동안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불국사 템플스테이 팀장도 "미래 천년을 책임지는 청소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사찰 체험 뿐 아니라 힐링을 통한 자기성찰, 우리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불국사는 이번 첫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템플스테이관 마련 등 불교문화 알리기에 앞장 설 계획이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불국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http://www.bulguksa.org>)에서 볼 수 있다. (054)746-0983

손문철 대구지사장

## 현대불교신문사·사찰조경연구소 공동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몸이 불편한 이를 제외하고는 사찰환경을 위해 경내에서 차량이동을 삼가해야 한다. 사진은 경남의 사찰. 이 절 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들도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다.

## 절 마당이 주차장인가

산사 가는 길 한쪽에 하마비(下馬碑)가 세워진 경우를 간혹 본다. 하마비는 말에서 내려야 함을 알리는 작은 석비(石碑)인데, 선암사나 송광사 가는 길에는 오래 전에 세워진 하마비가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절가는 길에 하마비가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말에서 내려서 걸어야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하마비는 주로 조선시대에 만든 것으로 궁궐, 종묘, 왕릉 같은 왕실관련공간이나 서원이나 향교와 같은 유교공간의 초입에 세워져 있다. 사찰에 세워진 하마비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삼보를 모신 사찰에 출입할 때는 예를 갖추라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더불어 조선시대에는 불교에 대한 사대부들의 횡포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옛날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도 사찰에 갈 때는 걸어서 들어가야 했던 것이 상례였으니 이것은 삼보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의 일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어찌 성역에 들어가면서 감히 말위에 앉아 거들먹거릴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을 보면 이 작은 석비에 새겨진 하마비라는 세 글자는 그 위력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집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사는 세상이다. 차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니 이해할지도 하다. 예전 같으면 감히 차가 다닐 수 없는 깊은 산사에도 아스콘으로 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차들이 거침없이 다니는 세상이 되었다. 맑은 공기와 개울 가득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한가로이 걷고 싶어도 주저 없이 달리는 차 때문에 걸기가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차를 몰고 절 앞마당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제대로 된 주차장이 있을 리 없다. 고찰에 어디 예전부터 주차장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절 마당에까지 차를 세우는 무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안중에도 없다. 자기만 편하면 그

### 절 입구에 '하마비' 세운뜻 알아 사찰 환경 헤치는 '나만 편하자'

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해야 할 불자들의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절집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사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마음부터 내야 한다. 자기 편하기 위해 차를 몰고 산 깊은 곳에 있는 사찰에 가려는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든 이들이 차를 두고 걸어 들어가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때 비로소 사찰은 맑고 밝은 환경이 지속가능해질 수 있다. 녹색혁명은 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 故 동봉 이인희 거사 49재

7월 15일 운문사서, 300여 불자 극락왕생 발원

역수같이 퍼붓는 장마비 속에서 故동봉 이인희 거사(사진)의 49재가 7월 15일 정도 운문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

지난 초파일 새벽, 89세로 유명한 달리한 故동봉 거사는 1972년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고, 부산불교학술회를 창립하여 청소년 포교와 불교신행단체에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당시 불모지였던 부산 불교계에 불심을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운문사 승가대학 후원과 사리암 불사를 주도하여 학인스님들이 공



부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동봉 거사 49재에서 《무상계》를 주제로 한 법문을 통해 "지수화풍의 사대가 헛되고 헛되니

아낄 것이 없다. 운문사의 대부이신 이인희 거사의 무주상 보시는 열반에 들고자 하는 무상함의 실천"이라고 추모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대구불교사암聯 제11대 회장 경희 스님

대구불교사암유지연합회 제11대 회장에 대구 서봉사 주지 경희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대구사원연합회는 7월 17일 프린스 호텔에서 前동화사 주지 무공 스님과 前조계종 원로위원 원명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이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경희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듯이 이제 비구니 스님들도 비구 스님들과 함께 활발



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연합회와 불교를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사원유지연합회는 이날 행사에서 축하 화환과 축의금

대신 받은 20kg들이 쌀 200포대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해인사 학인 스님 13명 자비행 펼쳐

해인사 학인 스님들이 무더운 여름 복지관을 찾아 자비행을 펼쳐 눈길을 끈다.

해인사에서 평소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던 학인 스님 13명은 7월 13일 '거창군살의쉼터'를 찾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탁발로 모은 50만원으로 구입한 선종기 8대를 전달했다. 또 이날 스님들은 거창 죽림정사(주지 일광) 신도들과 함께 13일 복지관을 찾은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점심 공양 및 환경미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현장에서는 '아씨음향'에서 제공하는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전문노래감사 지도 하에 '앗씨음향과 함께하는 신

명나는 노래교실'이 진행되기도 했다.

'거창군살의쉼터' 관광 도영 스님은 "어려울 때 때마다 잊지 않고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지역사회업체와 스님, 불자님들께 복지관 직원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지역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살의쉼터'는 7월 25~27일 국립서울맹학교 안마봉사단 다순봉사회(회장 김남규)와 평소 안마혜택을 접하기 힘든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안마서비스'를 실시한다.

경남 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 부산고법, 주지임명 사찰권한 판결

사찰이 종단에 등록된 뒤에도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왔다면 주지 임명권이 사찰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7월 5일 울산 용암사 이사회가 태고종을 상대로 낸 주지 임명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암사는 태고종에 등록된 뒤 건물과 토지 등 재산을 태고종에 출연하지 않고 독자적 재산권을 행사해 왔으

므로 독립 사찰로 봐야 한다"며 "이사회 동의 없이 태고종이 한 주지 임명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태고종 정관에도 재산 출연 사찰의 자율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68년 창건된 용암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종단이 임명했다. 이사회에서 2006년 주지를 제명하기로 했으나 종단에서 재임명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맘 흘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집시!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에비스님) 모집